

노인의 성에 따른 의복 디자인 선호 및 구매에 관한 연구

유 경 숙
군산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A Study on Clothing Design Preference and Purchase associated with Gender of the Aging

Kyung-Sook You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Kunsan National Univ.
(2000. 8. 7 투고)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how clothing design preference and clothing attitude vary according to gender of the aging. Using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terview with 200 subjects who were 60years of age and older residing at Kunsan city area in Korea. Thes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χ^2 -test.

The tendency of the gender on jacket style preference showed that men liked the soutien collar jacket, two button single jacket, and four button double jacket, women liked two button single jacket, three button single jacket and four button double jacket. The general preference did not depend on the practical purchasing. Men preferred more the soutien collar jacket than the women.

On the shirts pattern preference, men liked thick horizon and plaid pattern, while the women liked polk dots pattern and small flowered one.

The practical clothing purchase was done by themselves directly. The important criteria depended on the appearance style like simple and smart. For the main complaining factor to purchase the clothes, men considered the color, and women complained not to have suitable shopping stores. The most of all complaining was the expensive prices.

Key Words : the aged, gender, design preference, clothing purchase

노년층, 성별, 디자인 선호, 의복구매

I. 서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산업화에 따른 경제 발전과 현대 의학의 발달은 사람들의 일반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이들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킴으로서 평균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성장과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신체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특히 여성은 임신, 출산 등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형의 변화가 현저하여 노년층 여성들이 몸에 적절하게 맞는 옷이나 유행스타일의 옷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노인의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지적,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고 이미 축적한 경제력이 있거나 계속적인 경제능력이 있다. 또한 국제적 감각을 갖고 생활의욕 및 일에 대한 의욕과 레저에 대한 의욕이 왕성하여 자기만의 감각을 가지고 소비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의복은 노인의 노후 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 및 사회관계에 대한 적응이나 자아개념의 재확립과 같은 적극적인 자기 이미지 유지와 노화에 따른 사회 심리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의복은 자아지지의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도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의복이 필요하며^{1), 2)} 몸에 잘 맞고 적절한 옷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고,^{3), 4)} 의복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개인적 수용 그리고 사회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더군다나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과 비슷한 의복가치와 욕구를 보였다^{6), 7)}.

이는 매력적인 의복이 노화과정을 역류시키거나 지연시키지는 못하지만 자아를 지지해주고 자아상을 높여줄 수 있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²⁾. 즉 의복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개인적 수용 그리고 사회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복에 대한 욕구와 선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의복디자인의 일반적인

선호와 실제 구매시 선호의 차이, 그리고 의복 구매시에 불만스러운 점, 보기 좋은 옷의 기준 등을 남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노인복 제조업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과 노인들의 만족스러운 의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관련연구 고찰

1. 노년기의 특징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운동능력과 사고능력의 노화정도가 다르고, 또한 의식수준도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노인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사회의 모든 적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와 유리(遊離)하는 은퇴시기가 노년기로 간주된다⁸⁾.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정서가 결여되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 되어 변화를 싫어하며 행동 양식이 외괄수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고, 창의성과 융통성이 감소되고 자아에 대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며 의심이 많고, 불평 불만, 변덕이 심하고, 또한 은퇴, 배우자 사망, 질병, 수입 감소 등^{9), 10)}, 체력과 경제적인 면에서 약화되어 가는 상태이지만, 노인단체 등의 사회적 활동에는 새롭게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다¹¹⁾.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우선 신체적인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 신체 노화의 정도는 외모의 변화, 신체 기능의 변화, 체형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¹²⁾, 그중 외모의 변화는 머리의 색이 회색으로 변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며 모발이나 치아가 빠지는 것 등이다. 신체기능의 변화는 생리적 변화, 운동량의 감소, 혈액순환 부진, 피하지방층의 감소 등으로 운동기능이 저하됨을 들 수 있다. 체형의 변화로는 신장이 줄고, 체중이 증가하며 가슴이 줄어들고 엉덩이 둘레가 커지며 허리가 굽어져서 허리선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어깨는 처지고, 등이 굽으며, 뒷목에 살이 붙게 된다. 이러한 변화 외에 노인들은 신체적, 생리적인 능력과 적응력이 감퇴되

어 불안, 초조, 자신감 상실, 이해력 감소, 피로 등이 나타나게 되므로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게 되고 매사에 의욕이 상실되어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¹³⁾.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데, 노인에게 잘 맞는 의복의 역할은 중지되었거나 약화된 그들의 사회적 권위 및 활동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에 도움을 주며²⁾,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⁴⁾.

즉 노년기에 자신의 자아에 맞는 의복은 사회적응과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자아를 강화시켜 자신감과 사회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2. 의복디자인 선호

노년기의 신체노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변화는 개인의 유전인자, 생활양식 및 환경조건의 영향을 받아 변화의 속도와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중년기부터 진행되어온 신체적 변화가 노년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노인들의 의복 선택과 착용시에 문제가 되며 의복에 대한 불만의 요인이 되어, 노인의 의복 안락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¹⁴⁾.

의복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선의 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의복에서 선은 형태와 실루엣을 결정하며 선은 디자인상의 개성이나 분위기를 자유롭게 표현해 주는 시각적 요소이다. 또한, 의복의 스타일은 의복 구입 및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의복에서 직선을 선호하는 사람은 남성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스포티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은 보다 남성적인 특성이 높았다¹⁵⁾. 여대생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¹⁶⁾ 여대생은 직선적인 스포티한 스타일을, 성인 여성은 곡선적인 드레시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행형 재킷스타일보다는 전통형 재킷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7), 18)} 전통형인 싱글 재킷이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의 정신 노동자에 의해 넓게 수용되었다¹⁹⁾.

문양에 있어서 작은 문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큰

문양을 선호하는 사람과 달리 좋은 인상에 관심이 높아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려 하며 매우 여성적이고 사회생활 점수도 높았으며²⁰⁾, 의복의 경제성에 관심이 있으며 이론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나 큰 문양을 선호하는 사람은 심미적 가치관을 강조한다고 한다²¹⁾. 성인 여성의 경우 20대 여성은 스포티한 디자인과 무지나 기하학적인 무늬를 선호하였으며, 30, 40대 여성은 드레시한 스타일과 점무늬, 꽃무늬 등 우아한 무늬를 선호하였다²²⁾. 성과 연령에 따른 연구¹⁸⁾에서는 가는 체크문양과 플레드 문양은 여자보다 남자의 선호가 높았으며 플레드 문양은 연령이 높아 갈수록 낮은 선호를 보였다. 또한 굵은 가로줄 문양은 여자보다 남자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고 10대의 선호가 가장 높았다. 물방울 문양도 연령이 높아갈수록 남자보다 여성의 선호가 높았다. 한편, 여고생과 여대생은 스포티한 스타일과 줄무늬 등 기하학적 무늬를 선호한 반면 성인여성은 드레시한 스타일과 꽃무늬 등의 사실적인 무늬를 선호하였다. 또한 여성적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큰 무늬 보다 작은 무늬와 꽃무늬, 점, 물방울 무늬 등을 선호하였다.

노인들은 의복을 구입하는데 적당한 스타일이나 몸에 맞는 것을 고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디자인 면에서 노인이 선호하는 것은 안락감과 유연성이 있는 것, 너무 덥거나 춥지 않는 것, 입고 벗기 편한 것 등이다²³⁾.

그러므로 그들이 원하는 색상과 무늬, 적절한 재질 등, Ebeling과 Rosencranz²⁴⁾가 주장한 바와 같이 노년기 신체의 변화에 따른 신체상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옷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재킷스타일, 남방문양에 관한 일반적인 선호와 실제적인 의복구매 선호, 의복 구매 시 불만스러운 점, 실제적인 의복

구매자 및 보기 좋은 옷의 기준 등을 포함하였다.

디자인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경숙¹⁸⁾의 선행 연구에서 재킷스타일과 남방문양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재킷과 남방이 성별에 관계없이 입혀지는 품목이므로 재킷은 스타일의 측정, 남방은 문양 선호의 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선정하였다. 재킷 스타일의 선호는 정장 스타일 3개와 캐주얼 스타일 3개를 합쳐 모두 6개의 스타일을, 남방의 문양은 모두 6가지로 가로줄 문양, 물방울 문양, 작은 꽃 문양, 가는 체크, 플래드(굵은 체크), 세로줄 문양을 택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면접법에 의한 조사이므로 재킷과 남방의 그림을 각각 36.3×25.3크기의 캔트지에 제시하여 선호를 측정하였다.

2.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임의 표집하였으며 남자 88명, 여자 112명으로 총 2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6년 12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χ^2 검증과 빈도분포를 실시하였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집 대상을 군산에 거주하

고 있는 노인으로 한정하였고 응답자의 선정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한 편의 표본표출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측정도구가 표준화된 검사지가 아닌 설문조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디자인 선호

재킷디자인의 일반적 선호와 구매 선호 각각에 있어서 <표 1>과 같이 남녀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재킷디자인의 일반적인 선호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를 Column%로 비교하여 보면 노년층 남자는 수티엔칼라 점퍼(31.8%)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단추2개 싱글재킷(22.7%), 단추4개 더블재킷(20.5%)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노년층 여자는 단추2개 싱글재킷(29.5%)과 단추3개 싱글재킷(29.5%) 그리고 단추4개 더블재킷(21.4%)의 순으로 선호의 차이를 보였다. 구매선호는 노년층 남자는 수티엔칼라 점퍼(37.5%), 단추2개 싱글재킷(21.6%), 단추4개 더블재킷(15.9%)의 순으로, 노년층 여자는 단추2개 싱글재킷(32.1%), 단추3개 싱글재킷(23.2%), 단추4개 더블재킷(22.3%)으로 일반적 선호와 %의 차이를 보일 뿐 선호의 순위의 차이에 변화가 없었다. 즉 노년층 남자는 수티엔칼라 점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모든 연령층에서 수티

<표 1> 재킷디자인 선호의 차이

구 분	재킷 스타일의 일반적 선호				재킷 스타일의 구매선호			
	남	여	계	X ²	남	여	계	X ²
단추2개 싱글재킷	20(22.7)	33(29.5)	53(26.5)	25.45** df=5	19(21.6)	36(32.1)	55(27.5)	23.12** df=5
단추3개 싱글재킷	7(8.0)	33(29.5)	40(20.0)		9(10.2)	26(23.2)	35(17.5)	
단추4개 더블재킷	18(20.5)	24(21.4)	42(21.0)		14(15.9)	25(22.3)	39(19.5)	
사파리형 재킷	12(13.6)	5(4.4)	17(8.5)		11(12.5)	4(3.6)	15(7.5)	
수티엔칼라 점퍼	28(31.8)	15(13.4)	43(21.5)		33(37.5)	17(15.2)	50(25.0)	
후드달린 재킷	3(3.4)	2(1.8)	5(2.5)		2(2.3)	4(3.6)	6(3.0)	
계	88(100)	112(100)	200(100)		88(100)	112(100)	200(100)	

**P < 0.01, () = col. %

앵칼라 점퍼를 가장 선호한다는 유경숙¹⁸⁾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성인 남성은 유행형 재킷스타일보다 전통형 재킷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김재희¹⁷⁾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체력과 경제력의 약화¹¹⁾로 매력적인 외모나 심리적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옷에 대한 욕구보다는 무난한 스타일의 의복을 구매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선호와 실제 구매선호의 차이를 col. %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단추4개 더블재킷의 선호에 있어서 일반적인 선호(20.5%)보다 실제 구매선호(15.9%)가 감소하였으나 수티앵칼라 점퍼는 일반적인 선호(31.8%)보다 실제 구매선호(37.5%)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자는 단추2개 싱글재킷의 구매선호(32.1%)가 일반적인 선호(29.5%)보다 약간 증가한 반면 단추3개 싱글재킷의 구매선호(23.2%)는 일반적인 선호(29.5%)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정서가 결여되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 되어 변화를 싫어하며 행동 양식이 외골수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고, 창의성과 융통성이 감소되고¹⁰⁾ 신체의 노화와 사회활동의 감소¹³⁾ 등으로 인하여 유행이나 다양한 스타일의 선호보다는 수수하고 무난해 보이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옷에 대한 실제적인 구매 선호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방문양의 선호에 있어서 <표 2>와 같이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인 선호를 보면, 남자는 굵은 가로줄문양(29.5%)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플레드문양(26.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는 물방울문양(32.1%)과 작은 꽃문양(32.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층의 연구 결과^{18), 22)}와 일치하여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에 맞는 의복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남방문양의 실제적인 구매선호를 보면 굵은 가로줄문양(21.6%)보다 플레드문양(37.5%)의 선호가 더 높았다. 여자는 물방울문양(23.2%)이나 작은 꽃문양(22.3%)보다 굵은 가로줄문양(32.1%)의 실제적인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선호와 다른 구매의도로서 물방울문양이나 작은 꽃문양은 성인 여성이 주로 선호하는^{18), 22)} 문양으로 굵은 가로줄문양에 대한 구매 선호는 색다른 문양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의복 구매시 불만스러운 점

의복 구매시에 불만스러운 점을 해당하는 문항에 모두 표기하도록 한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 모두 40%이상이 '가격이 비싸다'로 응답하였다. 이는 은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면의 약화로 인하여^{9), 10)} 피복비에 대한 부담을 나타낸다고 본다. 두번 째로 많은 불만 요인은 남자의 경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42.0%)로 나타났으나 여자는 25.0%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색상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노년층의 남자의 신체 기능의 변화 및 외모변화를 고려한 적절하고 다양한 색상의 옷에 대한

<표 2> 남방문양 선호의 차이

구 분	남방문양의 일반적 선호				남방문양의 구매선호			
	남	여	계	X ²	남	여	계	X ²
굵은 가로줄문양	26(29.5)	9(8.0)	35(17.5)	49.52** df=5	19(21.6)	36(32.1)	55(27.5)	49.52** df=5
물방울문양	9(10.2)	36(32.1)	45(22.5)		9(10.2)	26(23.2)	35(17.5)	
작은 꽃문양	7(8.7)	36(32.1)	43(21.5)		14(15.9)	25(22.3)	39(19.5)	
가는 체크문양	8(9.1)	6(5.4)	14(7.0)		11(12.5)	4(3.6)	15(7.5)	
플레드(굵은 체크)	23(26.1)	8(7.2)	31(15.5)		33(37.5)	17(15.2)	50(25.0)	
세로줄문양	15(17.1)	17(15.2)	32(16.0)		2(2.3)	4(3.6)	6(3.0)	
계	88(100)	112(100)	200(100)		88(100)	112(100)	200(100)	

** P < 0.01. () = col. %

<표 3> 의복구매시 불만스러운점

항 목	남	여
1. 몸에 맞지 않는다	28(31.8)	43(38.4)
2.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37(42.0)	28(25.0)
3. 노인들이 입을 옷을 살만한 곳이 없다	31(35.2)	47(42.0)
4. 세탁 및 관리면에서 좋지 않다	9(10.2)	7(6.3)
5. 가격이 비싸다	40(45.5)	52(46.4)
6. 자신의 체형과 어울리지 않는다	24(27.3)	35(31.3)

() = col. %

욕구를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자는 두 번째로, '노인들이 입을 옷을 살만한 곳이 없다'(42.0%)는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노인의 경우 옷에 대한 욕구는 강해, 노인의 체형의 특성과 미적 감각을 고려한 전문 의상점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몸에 맞지 않는다'는 남자(31.8%)보다 여자(38.4%)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체형의 변화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기 때문²⁾으로 판단된다.

3. 실제적인 의복 구입자

노인의 실제적인 의복 구입은 전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구입(46%)하였고, 그 다음이 자녀(37.5%)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옷은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하여 입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복구입에 있어서 실제적인 구매는 남녀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남녀 모두 본인구입이 가장 많았으나 column %로 비교하여 보면 남자(39.8%)보다 여자(50.9%)

가 더 많이 자신의 옷을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보다 여자의 의복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 자신이 입을 의복을 직접 선택하여 입기를 원하며, 실질적으로 남편의 옷을 부인이 구매하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자식이 사준다'였는데, 이는 노인이 되면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 자식들이 부모에게 옷을 선물로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보다 남자의 배우자 구입이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의복구입이 남자보다 여자에 의해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의복 이미지 선호

보기 좋은 옷의 기준에 관한 남녀의 차이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column %를 비교하여 보면 남(56.8%)녀(50%), 모두 '수수하고 단정한 옷'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신체적, 생리적인 능력과 적응력이 감퇴되어¹³⁾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회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²⁾ 의복 이미지를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남자는 '편안하게 보이는 옷'을 선호한 반면에 여자는 '기품이 있고 우아한 옷', '화려하고 대담한 옷'의 순으로 선호하여 '편안하게 보이는 옷'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았다. 이는 남자가 외적으로 매력적인 옷보다 사회적 활동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¹¹⁾ 여자 노인은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옷에 대한 욕구⁷⁾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의복구입자

의복구입자(누가, 어떻게)	남	여	계	X ²
① 내가산다	35(39.8)	57(50.9)	92(46.0)	17.81** df=4
② 배우자가 사준다	16(18.2)	2(1.8)	18(9.0)	
③ 자식이 사준다	30(34.1)	45(40.2)	75(37.5)	
④ 친척등 남이 선물로 준다	1(1.1)	0(0.0)	1(0.5)	
⑤ 기타	6(6.8)	8(7.1)	14(7.0)	
계	88(100)	112(100)	200(100)	

**P < 0.01, () = col. %

<표 5> 보기 좋은 옷의 기준

보기좋은 옷의 기준	남	여	계	X ²
① 수수하고 단정한 옷	50(56.8)	56(50.0)	106(53.0)	8.83* df=3
② 화려하고 대담한 옷	7(8.0)	18(16.1)	25(12.5)	
③ 기품이 있고 우아한 옷	9(10.2)	22(19.6)	31(15.5)	
④ 편안하게 보이는 옷	22(25.0)	16(14.3)	38(19.0)	
계	88(100)	112(100)	200(100)	

*P< 0.1, () = col.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복디자인 일반적인 선호와 실제 구매시의 선호의 차이, 그리고 의복 구매 시에 불만스러운 점을 남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60세 이상의 남자 88명, 여자 112명으로 모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재킷디자인의 일반적 선호와 구매 선호 각각에 있어서 남녀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노년층 남자는 수티엔칼라 점퍼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단추2개 싱글재킷, 단추4개 더블재킷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노년층 여자는 단추2개 싱글재킷과 단추3개 싱글재킷 그리고 단추4개 더블재킷의 순으로 선호의 차이를 보였다. 구매선호는 노년층 남자는 수티엔 칼라점퍼, 단추2개 싱글재킷, 단추4개 더블재킷의 순으로, 노년층 여자는 단추2개 싱글재킷, 단추3개 싱글재킷, 단추4개 더블재킷으로 일반적 선호와 %의 차이를 보일 뿐 선호의 순위에 차이에 변화가 없었다.

노년층 남자는 수티엔 칼라점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선호 조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티엔 칼라점퍼의 선호가 높았던 것과 같은 의미로, 성인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력 및 경제력의 약화로 활동이 편한 전통형 재킷 스타일을 유행형 재킷스타일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선호와 실제 구매선호를 비교해보면 남자는 단추4개 더블재킷의 선호에 있어서 일반적인 선호보다 실제 구매선호가 감소하였으나, 수티엔 칼라점퍼는 일반적인 선호보다 실제 구매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자는 단추2개 싱글재킷의 구매선호가 일반적인 선호보다 약간 증가한 반면, 단추3개 싱글재킷의 구매선호는 일반적인 선호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방문양의 선호에 있어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일반적인 선호를 보면, 남자는 굵은 가로줄문양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플레드문양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는 물방울문양과 작은 꽃문양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에 맞는 매력적인 의복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남방문양의 실제적인 구매선호를 보면 굵은 가로줄문양보다 플레드문양의 선호가 가장 높았다. 여자는 물방울문양이나 작은 꽃 문양보다 굵은 가로줄문양의 실제적인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선호와 다른 선호로서 여자 노인의 경우 물방울문양이나 작은 꽃 문양은 성인 여성이 주로 선호하는 문양으로 굵은 가로줄문양에 대한 구매 선호는 색다른 문양에 대한 구매욕구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의복 구매시에 가장 불만스러운 점을 남녀 모두 의복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응답하여, 은퇴 등으로 인한 경제력 약화로 인한 피복비에 대한 부담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는 남자의 경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색상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신체기능 및 외모변화를 고려한 적절하고 다양한 색상의 옷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자는 두 번째로, 노인들이 입을 옷을 살만한 곳이 없다는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노인의 경

우 옷에 대한 욕구는 강해, 노인의 체형의 특성과 미적 감각을 고려한 전문 의상점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남자보다 여자의 몸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체형의 변화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의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저렴하고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전문 의상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의 실제적인 의복 구입은 전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구입하였고, 그 다음이 자식으로 나타났다. 의복구입에 있어서 실제적인 구매는 남녀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남녀 모두 본인구입이 가장 많았으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자신의 옷을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보다 남자의 배우자 구입이 높게 나타났다.

보기 좋은 옷의 기준에 관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남녀 모두 수수하고 단정한 옷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회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복 이미지를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남자는 편안하게 보이는 옷을 선호한 반면에 여자는 기품이 있고 우아한 옷, 화려하고 대담한 옷의 순으로 선호하여, 편안하게 보이는 옷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았다. 이는 남자가 외적으로 매력적인 옷보다 사회적 활동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자 노인은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옷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노년층 남녀의 의복에 대한 선호 및 태도의 차이를 알 수 있어, 남자의 경우는 경제력의 약화와 노년기의 특징인 감정적이고 주관적이 되어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 및 신체기능의 변화로 유행이나 외적인 매력과는 관계없이 수수한 전통적인 스타일에 활동이 편한 옷을 선호하는 반면 여자는 낮은 경제력에도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욕구를 지닌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렴하면서도 노년층의 신체적인 변화에 맞고, 점차 늘어가는 노인의 사회 활동에 적절한 의복 디자인의 개발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집중력이 약한 노년층의 특성에 맞게 광범하면서 개괄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변인에 대하

여 세분화되고 실물을 가진 구체적인 디자인의 선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홍병숙, 기혼여성의 의복구매 의사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2) Ryan, M. S.,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306.
- 3) Lowe, J., Older women may finally get some clothes that fit, Sacramento Bee, 1991, 5.
- 4) Smathers, D. G., Horridge, P. E., The effects of physical changes on clothing preferences of elderly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9(3), 1978, 273-278.
- 5) Workman, J. & Johnson, K., The role of clothing in perpetrating ageism, Journal of Home Economics, 81(3), 1989, 11-14.
- 6) Patterson, C. A., Selected body measurements of women aged sixty-five and older,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Gainesville, 1981.
- 7) Tate, M. T. & Glisson, O., Family clothing,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67, 327-330.
- 8) Cumming, E. & Henry, W. I., Growing Old : The process of disenagement, Boston : Tawny Publishers, 1961, 50.
- 9) 하상락, "가정 및 사회에 있어 노인의 지위 및 권위의 변천", 문교부 학술연구보고서, 서울문화사, 1972, 30.
- 10) 박미령, 가족내 노인역할과 소외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27.
- 11) 조복희외 2인, 인간발달 : 발달심리적 접근, 교문사, 1991, 489.
- 12) 임치경,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3)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연구, 1975, 82-111.
- 14) 정희용,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15) 이인자,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1976, 185-199.
- 16) 이선재,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1), 1987, 29-42.
- 17) 김재희,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와 성역할 태도와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4.
- 18) 유경숙,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

- 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 19) 고애란.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 20) Compton, N. H., Personal A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Journal of Psychology*, 54(1), 1962, 191-195.
- 21) Taylor, L. C., and Compton, N. H., Personality Correlates of Dress Confor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60(8), 1968, 653-656.
- 22) 이미경. 성인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84.
- 23) 조은주. 노년층 여성의 의복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8.
- 24) Ebeling, M. & Rosencranz, M. L., Social and Personal Aspect of clothing for old woman. *Journal of Home Economics*, 53(6), 1961, 465.